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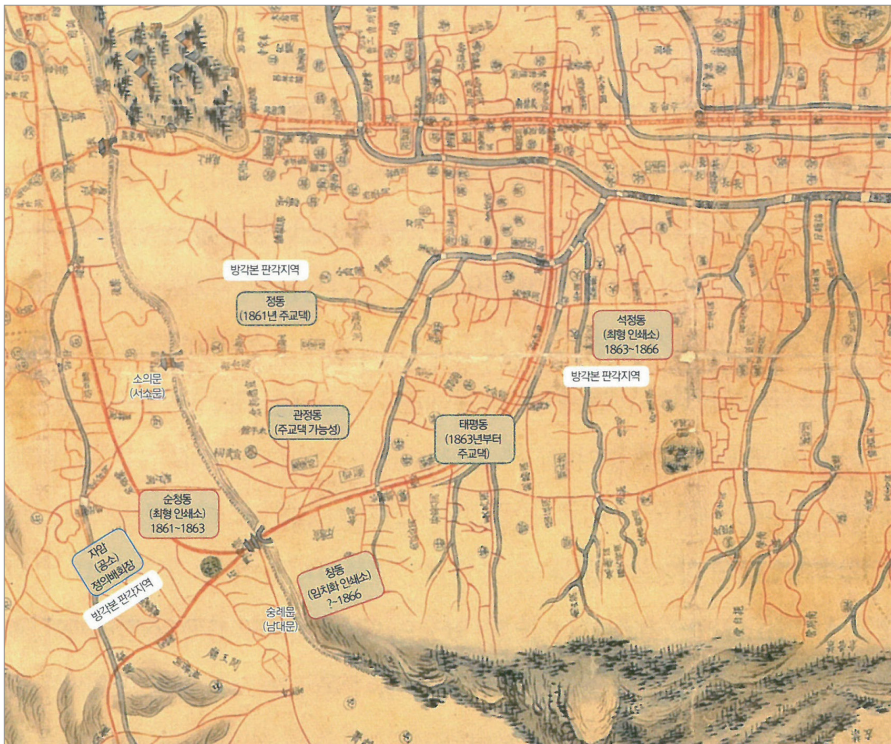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4)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3-1절 조선대목구의 사목지침 확립과 목판인쇄소의 건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1) 서울 인쇄소의 개수와 위치’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860년대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주교대과 자암 공소 포함) [2021년 연구서, 241쪽]

##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 2021년 글(238~242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많은 초기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목구 차원에서 인쇄소를 건립하려 했던 것은 필사본 제작에 비해 다량의 책을 싼값에 만들어 널리 유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자 흩어져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의해 부정기적으로 소량씩 제작되는 필사본은 생산단계에서 목판인쇄본을 따라갈 수 없었고 유통되는 범주도 좁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특수한 기술을 확보해야 가능한 목판인쇄를 개인이 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었다. 동시에 천주교서적의 생산과 유통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利點)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쇄소 건립은 조선대목구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대목구장의 지휘 아래 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에 선교사제와 신자들이 참여했다.

조선대목구장이 건립한 이후 1866년 천주교 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다량의 서적을 간행했던 목판인쇄소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상 명확하지 못한 점이 많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활용하여 서울 인쇄소의 개수와 위치, 목판인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서울 인쇄소의 개수와 위치

앞의 3-1절[2월호 4쪽]에서 1861년에 목판인쇄소가 세워졌다고 밝혔는데, 1862년에는 인쇄소가 두 곳이 확인된다. 두 인쇄소가 동시에 세워졌는지 순차적으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64년 11월 까지 두 곳에서 천주교서적을 간행했고, 1865년에도 새 책을 간행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866년 이전까지 목판인쇄소가 2개였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나 1865년 5월 말 조선에 입국한 불리의 신부는 그해 9월에 작성한 서한에서 당시 목판인쇄소가 3개였음을 밝혔다.

인쇄소 두 곳이 생겨 여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리서와 기도서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만약 여전히 필사자 체제에 머물러 있었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교리와 기도문을 모르면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니 일이 더욱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우리가 보급한 책이 4,000권이 넘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2년 11월 4일에 홍콩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69쪽.]

우리 인쇄소 두 곳에서 올해 새 책 네 권을 펴냈고, 내년엔 다른 세 권이 나올 것입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4년 8월 18일에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73쪽.]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겪고 있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 쪽으로 약간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께서 해마다 많은 개종을 스스로 마련하십니다. 이 많은 개종이 세 군데 인쇄소에서 끊임없이 발행하는 책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볼리의 신부가 1865년 9월 22일에 포르 신부에게 보낸 서한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 2019, 『볼리의 신부 자료집』, 천주교수원교구 하우현성당, 306쪽.]

볼리의 신부는 당시 천주교 교세의 확장에 서적의 유포가 큰 역할을 했고, 당시 3개의 인쇄소에서 ‘끊임없이’ 책을 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1864년 8월 이후 1865년 9월 이전에 새로운 인쇄소를 건립하여 다른 인쇄소와 함께 천주교서적을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대목구 소유의 목판인쇄소는 주교택이나 신학교처럼 보안을 위해 일반 가옥에 마련되었을 것이고, 그 집주인이 인쇄소 담당자였고 그가 살던 집이 바로 인쇄소 자리였을 것이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인쇄소를 담당했던 신자는 3명이 확인된다. 최형(崔炯, 베드로), 임치화(任致禾, 요셉), 전장운(全長雲, 요한)이 그들이다. 이중 전장운은 1866년 초에야 임치화가 담당하고 있던 인쇄소를 인수했고, 그전에는 목판 인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확인되는 인쇄소는 두 곳이다.

칼레(Calais, 姜) 신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배교자 이선이의 밑고로 인쇄소가 발각되어 포졸들이 임치화의 집으로 들어다켰을 때 이미 한 달 전에 전장운이 그의 집과 인쇄소를 매입한 상태여서 포졸들은 임치화 대신 전장운을 체포했다.[칼레 신부가 작성한 ‘병인박해로 희생된 조선인 순교자들’(A-MEP Vol.579, f.1225-5~6)]

신자의 집을 인쇄소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대목구장인 베르뇌 주교가 담당했다. 최형의 의금부 진술에 의하면, 베르뇌 주교가 돈 1천 냥을 자신에게 주면서 천주교서적을 간행하도록 지시하여 목판 인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 1866년 1월 18일(양력 3월 4일) 심문 - 최형의 답변

장[베르뇌] 주교가 일찍이 돈 1천 냥을 저[최형]에게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책을 간행한 뒤에 내가 표기[감수 인증]를 붙인 다음에 나누어 준다고 약속하라.” 했(습니다.)

#### ▲ 1866년 1월 19일(양력 3월 5일) 심문 - 최형의 답변

책을 간행한 한 대목은 바로 장[베르뇌] 주교가 지시하여 시킨 일이었습니다. ... (책을 간행하여 배포한 지) 올해로 5년 되었습니다.

[『추안급국안』, 『사학죄인종삼부등국안』 ; 서종태 역, 2014, 『추안급국안』 85, 흐름, 86쪽, 114쪽.]

임치화가 거주했던 곳은 창동(倉洞, 현재 서울 중구 남창동)이었고, 전장운은 창동의 인쇄소를 인수했다가 병인 교옥(敎獄, 천주교 박해)이 발발하자 거기서 체포되었다. 최형이 거주하면서 천주교서적을 간행하던 곳은 석정동(石井洞, 현재 서울 중구 산림동 일대)이다. 그는 1866년 그곳에서 잡혔고, 집에 있던 책들과 목판 등도 모두 압수되어 소각되었다. 그런데 최형은 포도청에서 심문받을 때 계해년(1863)에 석정동으로 이사했고 그 이전에는 순청동(巡廳洞, 현재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1846년부터 거주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형은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어 추국받을 때 자신이 5년 전(1861년)부터 천주교서적을 간행했다고 진술했다. 즉 1863년 이전에 거주했던 순청동에서도 인쇄소를 운영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자들의 인쇄소와 대목구장 베르뇌 주교관과의 관계이다. 주교관이 있던 태평동(太平洞,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일대)과 창동 임치화·전장운의 인쇄소, 순청동과 석정동에 있던 최형의 인쇄소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거나 책들을 옮겨 나르기 쉬운 위치였고 그러한 조건이 인쇄소 건립에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최형의 포도청 진술에 의하면, 1863년 순청동에서 석정동으로 이사했던 그 해에 베르뇌 주교도 태평동으로 이사했다. 주교관이 태평동으로 이전되면서 최형의 인쇄소도 주교관에 좀 더 가까운 석정동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상 세 번째 인쇄소의 건립 시기와 위치, 담당자는 알 수 없지만, 창동과 순청동→석정동에 인쇄소가 세워졌고 임치화와 최형이 1865년까지 각각 인쇄소를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대목구의 목판인쇄소가 서울에 2~3곳에 건립되어 수년간 수 만권의 책을 간행하고 유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세기 당시 번성하고 있던 방각본(坊刻本, 조선후기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 한글 소설 출판업이 있었다. 여성과 중하류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글 소설이 서울과 전주를 중심으로 인쇄되고 전국으로 유통되었는데, 방각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서적을 제작·보급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방각본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주목한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가 직접 목판인쇄소를 건립했다고 추정된다.

조선대목구 목판인쇄소들이 건립된 장소 역시 방각본 인쇄소와 연관이 있는데, 자료상 확인되는 인쇄소 위치가 서로 겹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방각본의 간행 장소는 간기(刊記, 책 안에 기재된 간행 관련 기록)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목구 인쇄소[석정동]나 주교택[정동], 회장 집(서적의 중간 집결지)[자암(紫巖, 서울 중구 봉래동, 순화동 지역)]의 장소가 방각본 출판소와 겹치고 있다. 즉 방각본 인쇄소가 있는 지역에 조선대목구 목판인쇄소나 그 관련 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방각본 인쇄소가 위치한 지역에 조선대목구 목판인쇄소나 관련 장소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조선대목구장이나 인쇄소 주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종 인쇄업자가 모여 있어 싼 가격으로 인쇄 관련 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천주교서적을 다른 방각본 서적처럼 위장해서 자연스럽게 유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압수와 소각의 대상인 천주교서적을 간행하는 조선대목구 목판인쇄소는 안전을 위해 일반 방각본 출판소나 관련 종사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19세기 중반 당시 방각본의 출판과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천주교서적을 간행하고 보급함으로써 ‘문서 전교’라는 조선대목구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던 것이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